



6월18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실국	동물방역과	과장	이용보	팀장	박석준	☎	286-6580
----	-------	----	-----	----	-----	---	----------

전남도, 동절기 AI 대비 가금농장 일제 점검 및 방역시설 개선 지원

- 최신식 자동화 소독설비 지원으로 소독 효과 극대화 -

전라남도는 오는 6월 14일부터 9월말까지 약 4개월간 도내 가금농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 11월까지 방역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운영 중인 도내 가금 전업농장 699호를 대상으로 축종별로 점검 기관을 구분하여 1차로 오는 7.31일까지 전체 가금농장 점검을 완료한 후, 미흡 농장에 대해서는 9.30일까지 재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전실·방역실·울타리·그물망·CCTV 등 법정 방역시설 이상 유무 및 출입구 차량/대인 소독시설 등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며,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AI 발생농장에서 확인된 방역 미흡사항 및 권고사항*도 지도할 계획이다.

* 농장 내부 울타리, 전실 청결/오염구역 구분 운영, 농장 및 축사 부출입구(쪽문) 관리 등

전체 점검(1차) 결과 방역의무 위반 농장은 과태료 부과, 시정(정비·보수)명령, 이행계획서 징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또한 재점검(2차) 결과 방역·소독시설 등 법정 의무에 대한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농장은 보조 사업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AI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에 소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축사입구 및 축사마당·둘레 소독시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도자체 사업으로 45억여 원을 지원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가금농장은 사전 점검에서 확인된 미흡사항은 동절기 전 보완하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시기 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하고, “방역시설 개선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